

# “라식·라섹 못한 초고도근시나 각막이 얇은 사람에게 적합”

## 건강 바로 알기 스마일 수술

### 김재봉 신세계안과 원장

대학생 박지윤(여·22)씨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스마일 수술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오랫동안 착용해온 콘택트렌즈로 인해 충혈이 잘 쉽게 피로해지고 건조해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시력이 안 좋은데도 건조증도 심해 스마일 수술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안과에서 검사를 받을 계획”이라며 “렌즈와 안경에서 벗어날 수 있던 생각에 설렌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광주·전남지역에 최초로 스마일수술을 도입한 후 최근까지 3만례를 수술한 광주 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으로부터 시력교정술의 특징에 대해 물어보았다.

◇스마일 VS 라식·라섹 = 시력교정술은 각막의 두께와 근시 정도에 따라 시술법이 달라진다. 각막이 두꺼운 경우는 라식수술을, 각막이 얇으면 라섹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식과 라섹수술이 모두 가능하다면 직업과 수술 후 휴식기간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근시 정도가 약할 때는 일반 라식·라섹이 좋다.

또한 라식과 라섹수술이 모두 어려운 고도근시일 때는 스마일 수술이나 렌즈삽입

오렌지간 콘택트렌즈 착용해 충혈·쉽게 피로해 고려해 볼만  
시술후 빠른 회복력...업무 복귀 급한 직장인·군인 적극 권장

술이 대안이며, 건조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필요할 때는 스마일 수술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라식수술은 각막 절편을 생성한 후 각막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 교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각막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막에 분포하는 신경이 같이 절단돼 손상되게 된다. 신경이 손상되면 각막의 민감도가 떨어져 눈의 건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해 안구건조증, 빛 번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라섹은 각막상피를 제거 후에 각막표면에 레이저를 조사하므로 각막표면에 상당한 자극을 준다. 각막표면은 외부자극에 대한 세포 반응이 활발해 라섹 수술시 레이저의 자극은 각막에 심한 조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각막이 부영계 돼 시야가 흐려지는 각막혼탁이 생길 수 있다.

렌즈삽입술의 경우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눈 안에 렌즈를 넣는 수술이다. 라식과 라섹 수술이 하기 힘든 -9디옵터 이상의 초고도근시나 각막이 너무 얇은 경우에 렌즈삽입술을 통해 시력을 교정하지만 다소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라식·라섹 장점만 신세계스마일 = 신세계스마일 수술은 이 모든 수술 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수술 방법이다. 신세계스마일 수술의 대표적인 장점은 빠른 회복력

이다. 기존 라식은 약 20mm이상 각막을 절개해 시력을 교정하는 반면, 신세계스마일 수술은 90% 감소한 약 1-2mm의 최소 절개만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

또 각막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이저로 각막을 1-2mm만 절개해 각막 실질부만 제거함으로써 시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각막 절개 부위가 적어 안구건조증이나 빛 번짐 등 부작용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스마일 수술은 휴가를 내기 힘든 직장인이나 군인 등 빠른 복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부작용도 현저히 줄고 통증도 거의 없는 만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가의 렌즈삽입술 대신 선택 가능 = 시력이 매우 좋지 않거나 각막이 얇아 라식·라섹이 아닌 렌즈삽입술만 가능했던 초고도근시 환자들에게 스마일 수술은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초고도근시인 12.5디옵터(근시·난시 합도수)까지 시력 교정이 가능해 고가의 렌즈삽입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근시가 심할 경우 깎아내야 하는 각막의 양이 많아 각막이 눈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들출되는 각막확장증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신세계스마일



시력교정술로 안경에서 벗어날 것을 희망하는 여대생을 김재봉 신세계안과 대표원장이 진찰하고 있다.

〈신세계안과 제공〉

수술은 각막 손상 없이 각막 실질을 추출하는 원리를 사용해 초고도근시나 각막이 얇은 사람도 시력을 교정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초고도 근시를 갖고 있어 라식·라섹을 할 수 없고, 렌즈삽입술만 가능했던 환자들이 매우 저렴하게 시력 회복이 가능해졌다.

◇신세계안과, 전국 최초 리딩스마일센

터 선정 = 광주 신세계안과는 스마일 수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최초로 독일 칼자이스에서 'LEADING SMILE CENTER'로 선정됐다. 스마일수술을 개발한 독일의 칼자이스사는 신세계안과가 지난 2013년 광주·전남 최초로 스마일 수술을 도입한 후 3만례를 돌파하는 등 스마일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데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재봉 대표원장은 “스마일 수술은 라식·라섹에 비해 의료진의 경험과 실력이 매우 중요한 수술”이라며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수술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케이스의 수술 경험이 있는 안과인 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진료·연구 등 혁신 인프라 강화...미래의료 선도”

### ■취임 100일 맞는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장

#### 정밀의료·면역치료 등 차별화·‘의료혁신센터’ 건립 추진

글로벌 암특화병원으로 자리매김한 화순전남대병원의 신명근(사진) 제9대 원장이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여파로 지난 3월 별도의 취임식이 없이 업무를 시작한 그는 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경영과 인프라 조성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후 100일간 역점을 둔 사항은?

▲환자의 안전, 고객과 직원들의 행복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다. 특히 코로나19의 예방과 극복은 당면한 주요과제여서, 줄곧 긴장하고 있다.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직원들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최상위등급 병원’의 명성을 이어가며, 고객과 직원간 ‘따뜻한 동행’이 이뤄지도록 소통협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암치유와 암정복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병원의 미래 청사진,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여왔다. ‘자연속의 첨단의료, 환자중심, 세계중심’이라는 핵심가치 실현과 비전 공유,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병원의 발전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암특화병원에 머물지 않고, 환자맞춤형 암치유와 미래 의료로 선도하는 병원이 되려 한다. 국내 최고수준의 진료·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힘쓰겠다. 그 일환으로 특히 차세대 유전체 기반 정밀의료 활성화, 면역세포 기반 암치료연구 중진, 빅데이터 기반 암정보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 추진 등 ‘차별화 전략’을 마



내에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의 ‘개방형 의료혁신센터’를 새로이 건립할 계획이다. 국비를 포함해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설계용역 공모와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해 의생명 원천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하고자 한다.

포화상태인 주차난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지하주차장 증축에도 착수하려 한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치유 인프라 확대, 신속한 치료를 위한 진료 프로세스 개선, 국내외 협력병원 네트워크 강화 등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병원의 비전 달성을 위한 장기 구상은

▲병원의 비전은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의료센터’가 되는 것이다. 혁신과 소통 협력을 이끌어 ‘세계일류병원’이 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다. 차세대 의료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암 치유 메카’로서의 브랜드 향상에도 주력하겠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화순은 지금 의료도시, 바이오 밸리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전 국내에서 유일한 화순백신산업특구를 보완할 차세대 융·복합 헬스케어산업 육성도 절실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화순백신특구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연계한 ‘화순정밀의료산업단지’ 구상도 제시해본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기독병원, 1차 마취 적정성 평가 1등급

###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특수장비 보유 등 높은 점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행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1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처음 시행한 이번 평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입원해 마취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인력 등 구조부문과 안전관리 활동, 마취 중·후 환자상태를 평가하는 결과 등 13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광주기독병원은 특히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비율 ▲마취 중·후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에서 100점 만점을 받는 등 총 13개 평가 지표 대부분

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도 동일종별 평균 4개보다 많은 7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의료진의 전문성과 의료시설 및 장비역시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이 처음 실시한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의료진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노력 덕분이라고 자부하며,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술환자를 비롯한 모든 환자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며 지역의 의료발전과 지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

모던스타일

클래식스타일

지중해스타일